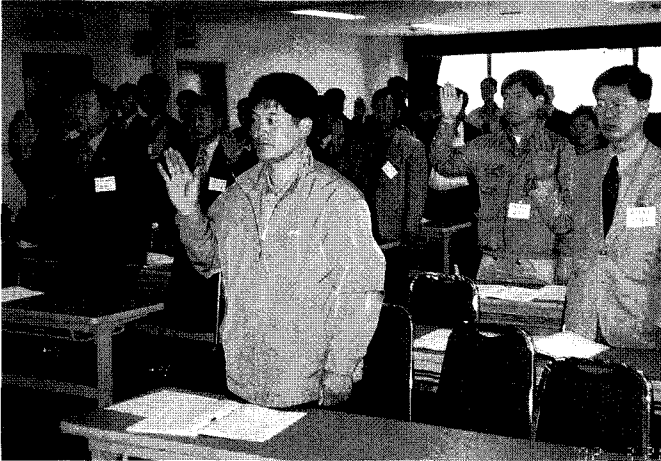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지자체 공명선거 대책위' 발족 및 출마자 교육 실시



▲ '한농연 지자체 공명선거 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지자체 선거 출마자 교육' 에서 참가자들이 공명선거를 다짐하며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농연 지자체공명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정식 발족했다. 한농연회관 5층 강당에서 진행된 발족식에는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공명선거 추진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8일 한농연회관 5층 강당에서 '지자체 공명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공명선거 추진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농업경영인은 지역 내 능력 있는 후보의 지방자치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공명선거와 정책선거의 기초를 확실히 뿌리내

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발족식에 이어 29일까지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도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6·13 지방선거와 농업경영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박홍수 중앙회장이 강연했다. 한농연의 회원으로서 선거에 출마했다는 의미와 자세를 선거 이후에도 간직하길 당부했으며, 중앙연합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두 번째 강연으로 "선거전략 수립방안"에 대해서 김능구 e-원컴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섰다. 이 강연에서는 사전에 준비된 전략을 수립해 보다 과학적인 선거운동을 강조했다. 세번째는 "연설행 및 거리유세 강화방안"으로 이관형 한국지도자연수원장이 강연했다. 교육자들에게 친근한 강의로 교육열을 높였으며 실질적으로 유권자를 만나고 유세를 함에 있어서의 기교와 발성, 표정 등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농업경영인 출신 의원에게 듣는 선거운동"이란 주제로 네 번째 강연을 황호방(광역), 정운순(기초)의원이 해주었으며, 간담회 형식으로 편하게 진행되었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연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두의원 또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었다. 다섯 번째 순서로 "선거전략 작성 실전연습"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강연 이 아닌 출마자가 직접 강연내용을 바탕으로

로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진행된 여섯 번째 강연은 “후보자 농정공약 작성과 주요 농정과제”로 중앙연합회 이재덕 사무총장이 진행했으며, 농업인으로서 기본적인 농정공약과 한농연의 풀어가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강연으로 “개정선거법 교육 및 선거자금 관리”로 김대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이 강사로 초빙되었다. 이 강연에서는 기초적인 선거법에 대한 해설과 선거법위반의 사례를 소개하였고, 마지막 강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다. 중앙연합회에서는 이 강연의 내용을 테이프로 복사해서 공명선거대책위 회원들에게 보냈으며, 비회원일 경우는 판매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회원가입 신청을 받으며 6.13 지방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노력하며 회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후원을 다짐한다.

도연합회 홈페이지 평가

한농연중앙연합회는 각 도 연합회 홈페이지를 평가해 연말 우수 도 연합회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하였다. 도연합회 홈페이지 평가는 2차 이사회에 보고된 바 있으며,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농연은 한농연의 대외적 위상제고 및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조직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각 도 연합회 홈페이지 보급사업을 시행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연합회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농연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운영·관리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농연의 정보화 수준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각 도연합회 홈페이지의 자체 진단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홈페이지 평가는 매월 이루어지며, 매월 평가점수 합계는 연말 우수 도 연합회 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매월 평가를 통해 가장 점수가 높은 도연합회 홈페이지를 ‘베스트 홈페이지’로 선정하여 중앙연합회 홈페이지(www.kaff.or.kr)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단,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홈페이지라 할지라도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홈페이지는 ‘베스트 홈페이지’에 선정되지 못한다.)

평가 기준은 정보 생산 및 활용, 운영전반, 구성/디자인, 회원참여도 등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정보 생산 및 활용면은 정보의 자체생산능력과 농업계, 중앙연합회, 도연합회, 시·군 연합회에 대한 풍부한 소식을 다루는지를 평가하며, 자료실의 활용도, 게시판 관리, 배너/링크 관리, 홍보/교육/보급 지원에 대한 내용은 운영전반의 평가내용이다. 이밖에도 독창적인 구성과 디자인, 회원참여도가 평가된다.

한농연 농수산TV ‘사랑의 쌀’ 전달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쌀소비촉진과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으로 모은 쌀을 추천 받아 전달했다.

◇ '사랑의 쌀' 전달

- 3.5(화)불우이웃(권오희/10가마), 불우이웃(정지숙/10가마)
- 3.6(수)홍정순 할머니(10가마), 홍남용 할아버지(5가마), 이정란 아주머니(10가마)
- 3.7(목)신목종합복지관(50가마), 성노원아기집(10가마), 공릉종합복지관(40가마), 참빛(35가마)
- 3.8(금)평화의 샘(20가마)

농수산TV를 통해 쌀을 전달받은 한 단체에서 감사의 뜻으로 보내주신 글

안녕하세요.

저는 공릉3동에 위치한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김효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 3월에 저희 복지관에서는 농수산 TV사로부터 성미 800킬로그램을 지원받았습니다.

한농연에서 기증해 주신 귀한 성미는 귀 단체의 뜻에 따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잘 전달해 드렸으며 그러한 도움이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주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후원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도움을 받으신 할아버지 한분의 따뜻한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번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대신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농사를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살피는 일과 같이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지만 가능한 자연의 아름다운 일꾼인 여러분들께서 또한 사람은 일에 무심하지 않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요.

제가 보내드리는 이 작은 편지가 그 고마움에 작은 보답이 되기를 바라며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편으로 저희 기관의 소식지와 연락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주심에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공릉종합사회복지관 후원담당 사회복지사 김효진 올림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경남도연합회, 고성 동부농협 조합장 비리 고발

한농연경남도연합회(회장 김흥기)가 고성 동부농협의 비리를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조합장 비리 척결을 위한 활동을 나섰다.

한농연경남도연합회는 지난 9일 최근 직원들의 제보에 의해 알려진 조합장 비리를 밝히고, 협동조합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다른 농민단체와 연대해 이의 척결에 앞장설 것을 표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동부농협은 △조합장에 의한 공제추진비 600만원의 도용 △신용불량 연체자에 대한 불법대출 △조합장과 인척관계 직원의 잘못된 호봉 산정 및 인사사고 불평등 등의 발목을 저질렀다는 것. 또 지난해부터 제기된 농용자재백화점 건립에 대해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았으며,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용 10% 감축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연합회는 함양 안의농협의 전 조합장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와 밀양 상동농협의 조합장이 주유소 건립 관련 리베이트 수수 등과 함께 조합장비리의 심각성을 제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흥기 회장은 “고성 동부농협은 농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리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다”며 “조합원과 직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계기관의 철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연합회 “농림부·농협·한농연 농정간담회”

한농연제주도연합회(회장 김창범)는 3월 28일 농협제주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박홍수 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부·농협·한농연 농정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배인태 농림부 과수화훼과장, 함병석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부부장과 한농연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농연은 최근 조직 개편으로 정리된 감귤시험장 환원과 연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또한, 시중 자금 대출금리에 비해 움직일 줄 모르는 농업정책 자금 금리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이밖에도 신규 영농후계자 농지구입시 밭, 논 등과 함께 감귤원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감귤 산지폐기 대금 조기 정산 등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기도연합회 “쌀산업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최유섭)은 3월 22일 여주 군민회관에서 농업경영인 및 농민 4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쌀산업 발전방향과 벼품종 정책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배종하 농림부 식량정책과장은 최근 경기도의 일본 벼품종 도입으로 농촌진흥청과 경기도가 빚고 있는 논란과 관련, "현재 농가에서 외래 고품질 벼가 폭넓게 재배되고 있어서 이들 품종의 국가목록 등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농진청 및 각 지자체 주관으로 일본·중국 품종의 재배시험을 거친 후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고품질 쌀 생산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나 세부정책이 없어 농가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며 "현행 국가주도의 품종육종·종자개발을 지자체에 이양,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벼를 재배토록 하고, 농진청은 국산종이든 외래종이든 쌀 품종 선택은 생산자에게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열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외래 벼 품종 도입은 신중해야되며 새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품종 자체에 매달리기 보다 기존 품종을 이용한 다양한 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형근 도 농산유통과장은 육종과 종자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한농연 삼척시연합회, 『협동조합개혁 토론회』 성황리 개최

한농연 삼척시연합회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삼척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협동조합개혁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제3기 민선 조합장 선거 완료 이후 협동조합의 개혁과 발전을 바라는 한농연 회원들의 열망이 높은 가운데 지역 농민단체 대표, 일선 지역조합장, 강원도 농정관련 공무원, 협동조합 전문가와 4백여명의 한농연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더욱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본 토론 순서에 앞서 "2002년 강원 농정"(이지수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장), "협동조합개혁과 농업인의 자세"(황민영 한국농어민신문 전 사장) 등의 강의가 있었다. 이후 김동열 본 연합회 제4대 전임 중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 순서에는 황민영(한국농어민신문 전 사장), 김홍걸(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장), 이출남(한여농 강원도연합회장), 김종익(원덕농협 조합장), 정상록(한농연 삼척시연합회 정책부회장), 홍순만(삼척시 농촌지도자회 대표), 심교두(독농가 대표)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상록 한농연 삼척시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지도기능과 조합간 조정기능을 상실한 채 단순 금융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농협 시·군지부를 폐지하고 모든 자산을 회원농협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익 원덕농협 조합장은 "1년에 벼 200가마를 생산하는 중농이 1천만원의 빚을 지면 평생 갚지 못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1,200만원 소득에서 생산비 600여만원을 빼고 나면 생활도 어려워 부채상환은 꿈도 못 꾸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농가부채 문제를 풀지 못하면 농업인 파산, 회원농협 파산, 농협중앙회 파산으로 이어지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주춤했던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폐지와 대출금리 인하 문제 등 농협개혁 현안들이 다시금 힘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농연 함안군연합회, 정책위원회 발족

한농연 함안군연합회는, 농업인의 대변단체로서의 확고한 역할과 당면 농정 현안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목적으로, 군연합회 산하 전문기구인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정책위원회는 군연합회 전직 임원진과 읍·면에서 1인씩 추천 받아 군 연합회장이 위촉한 6~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농업발전·농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농권 운동 전개, 각종 농업정책 홍보 및 여론 수렴, 지역 현안 문제·정책에 대한 수시 대응, 지역 정책 자료집 발간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소식

1. 농특위 추진 현황

- 2월 20일 :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국 설립준비단」구성·운영
- 3월 6일 : 위원장 및 당연직·위촉 위원 27인 위촉 및 본위원 구성 완료
제1차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규정 의결
- 3월 21일 : 위원회 본격 가동을 위하여 산하 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정비
사무국 인원 확보를 위한 행정자치부와 협의
농특위사무국 현판식 진행
- 3월 22일 : 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완료
전문연구위원 10인 위촉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농림부로부터 농어촌 교육 여건과 개선과제에 대하여 보고 청취

2.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별 주요검토 과제

■ 제1분과 : 농업경쟁력 제고 분과위원(21인)

- 위원장
이정환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 위 원

- 농민단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재덕 사무총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홍식 사무총장, 전국기술자협회 최동주 사무처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장세일 사무총장, 농협중앙회 신자철 상무, 전업농중앙연합회

이천해 사무총장, 과수연합회 윤익로 회장, 전남 광주원에조합 박종배 조합장, 전국한우협회 이규석 회장, 대한양돈협회 김진태 회장, 대한양계협회 최준구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김종호 상무

- 전문가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윤석원 교수 외 5인

- 소비자 단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 공무원

재경부 박병원 경제정책국장 외 5인

○ 주요 검토 과제

- 농지소유규제 완화 등 농제제도 개선 방안
- 신규농업인력 확보와 전문농업인력의 양성 방안
- 농업과학기술 개발 및 농업·농촌정보화 육성방안
- 농산물 유통효율화 및 수출증대 방안
-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과 산촌경제 활성화 방안
- 품목별 농산물 협상 대책(쌀, 축산, 원예)
- WTO 농산물 협상 동향과 대책
- 남북농업 교육 협력 동향과 대책

■ 제2분과 : 농업인 소득안정망 확충 분과위원(13인)

○ 위원장

김완배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위원

- 농민단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탁명구 정책실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강병기 정책위의장, 농협중앙회 이건호 상무, 신지식인농업인회 강용 총무이사,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원장,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정상목 회장

- 전문가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이태호 교수 외 3인

- 소비자 단체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고성아 사무총장

- 공무원

농림부 소만호 농업정책국장 외 1인

○ 주요 검토 과제

- 논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및 개편 방안
- 선진국형 새로운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검토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및 정착 방안
-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방안
-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장치
- 자조금, 유통명령, 유통협약 제도의 도입, 정착
-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제의 개선
- 자연 순환형(Recycling) 농업 육성 방안

■ 제3분과 : 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 분과위원(15인)

○ 위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홍식 교수

○ 위원

- 농민단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허기옥 수석부회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용옥 사무국장, 한국관관농원협회 유재춘 회장, 생활개선중앙회 김현숙 회장, 농협중앙회 김용택 상무

- 전문가

한국농촌연구원 정명채 선임연구위원 외 3인

- 소비자 단체

농촌의학회 강복수 회장

- 공무원

행정자치부 김광진 지방재정경제국장 외 4인

○ 주요 검토 과제

- 쾌적한 「삶의 공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방안
- 도시자본 유입 등 농촌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 그린투어리즘 등 다양한 농의소득원 확충방안
-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 생산기반정비 추진 방안
- 내실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 확충 방안

- 농어촌의 보육 및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방안
- 기초복지 확충 및 여성·노인복지 향상 방안
- 농촌 생활환경정책의 통합 조정 방안 등

■ 제4분과 : 어업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소득안정망 확충
분과위원(13인)



그 밖의 농업계 소식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발족

1.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발족

지난 3월 1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농·어촌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발족하였다.

그 동안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이 계속 위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게 되는 농·어민이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적 환경과 교육문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농촌교육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학교·학사 운영개선, 교원확보, 학생지원,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종합적인 「농어촌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교육 인적자원부는 “이처럼 낙후·소외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농·어촌교육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가칭)도 아울러 제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2.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는 학계 및 전문가와 관계부처·기관 공무원 11인으로 구성되었다.

○ 위원장

정지웅 서울대학교 교수

○ 위원(10인)

정명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종렬 강원대학교 교수, 진동섭 서울대학교 교수, 구자역 한국교육포럼회장, 김혜숙 연세대학교 교수, 최준렬 우석대학교 교수, 정철영 서울대학교 교수, 이정선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나승일 서울대학교 교수, 김종진 농림부 농업정책과장 인용인